

#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봄 날씨에 겨울 옷들을 벗어 모으니 방안이 옷들로 가득하다. 패딩 점퍼와 방한용 바지에 모자, 장갑, 내복까지 20여 개나 된다. 봄옷을 추리니 포장도 뜯지 않은 옷들까지 서랍장 구석에 박혀 있다 줄줄이 나온다. 내친김에 장롱에 쥘여진 모든 옷들을 모조리 깎집어냈다. 마흔 살, 쉰 살 때 내 몸과 체면을 감쌌던 옷들, 승진 기념으로 맞춰 입은, 안쪽 주머니에 새겨진 한자 이름이 있는 양복까지 거미줄을 달고 나온다. 나프탈렌에 절여 있는 옷들이 산더미다.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해변에는 옷과 섬유로 쌓인 20m 높이의 쓰레기 산이 있다. 옷 쓰레기 산에서 검은 소와 흰 소가 모여 풀을 뜯듯 옷의 잔해를 먹고 되새김질하고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흰 옷 무덤도 있다.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아크라의 해변 옷 쓰레기 산과 아타카마사막의 흰 옷 무덤은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약 50여 조원 규모의 패션 시장 규모를 가진 한국은 세계 5위의 중고의류 수출국이고 약 30만 톤의 중고 의류를 인도,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재활용 여부는 추정이 어렵다고 한다. 폐 의류는 통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옷은 재활용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가 좋아하는 종이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위한 것인데 패딩 같은 경우 외피, 내피, 단추, 지퍼, 충전제 등으로 분리하려면 많은 인력과 돈,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일반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입는 옷의 70%는 합성 섬유인데 유해물질로 인해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플라스틱 섬유조각이 미세먼지로 변해 호흡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가거나 하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출된다.

해외로 중고 의류를 수출하고 기부한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체가 되는 것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것이 과연 수출이라고 하고 기부라고 포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의류 산업이 환경오염 산업 2위로 등장한 주요인으로 패스트 패션과 소비문화의 변화가 지적된다. 2022년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에 의하면 매년 1000억 벌의 옷이 생산되고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한다. 입지도 않은 새 옷의 30%가 1년 안에 사라지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은 의류를 일회용품처럼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외여행 시 짐을 줄이거나, 귀찮아서 입던 옷들을 가져가지 않고 현지에서 사서 그냥 버리고 오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고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일상이 되었다. 의류 소비량은 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옷 한 벌의 수명은 반으로 줄게 된 것이다.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8층 짜리 의류봉제 공장건물이 무너져 1100여명이 죽고 2500여명이 다쳤는데 노동자들의 시급은 단 260원에 불과했다. 자라, 유니클로, H&M 같은 패스트패션 기업은 물론 아르마니, 알프르렌, 베네통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개발도상국에서 옷을 생산한다. 이들은 오로지 이윤을 위해 지구와 노동자를 착취한다. 물론 파타고니아 같은 비교적 윤리적 기업도 있긴 하다. 소비가 있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물량의 옷을 만들어 소비를 강제한다.

옷은 단순히 입을 것을 넘어 한복이나 아오자이, 기모노처럼 한 국가의 상징이 된다. 샤넬이나 프라다처럼 세계적 산업이 되고,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처럼 문화와 예술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필수품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옷이지만 옷 한 벌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 입는 자와 못 입는 자간 옷 계급을 만들기도 하고, 특정 명품 브랜드 옷을 고집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허리가 휘다. 골프복, 등산복을 겸용으로 입으면 촌스럽다 하여 따로 사게 만드니 옷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지인의 장례식 때 삼베수의를 입히느라 수 백 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우리 장례문화에서 삼베수의를 표준이 된 상태인데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가장 좋은 옷, 비단을 입혔고, 혼례 때 입었던 원삼도 수십 년을 보관하다 수의로 입었다고 한다. 원래 삼베수의를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이나 불효자라는 의미로 상주나 가족이 입는 옷이었는데 변질된 것이다. 2~3일 입다 태워 버릴 텐데 고인이 평소 아끼던 옷으로 수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책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소연 작가는 의류산업이 지구 환경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점점 거대해져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오래 입기, 쥘여 놓지 말고 보이도록 걸어 놓기, 옷 소비 줄이기 등 사소하지만 옷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실천할 만한 여러 방법을 제시해 준다. 크게 공감하여 이 글의 제목도 이소연 작가의 책 제목에서 따왔다.

"14도의 날씨엔 경량 패딩 재킷이나 니트를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트윈드 재킷을, 캐주얼한 무드를 선호한다면 윈드브레이커가 적합하다. 에어 쿨링 포켓 사론 부츠컷이나 로저스 퍼포먼스 메시 후디 집업으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어떤 곳에서 올 봄 입을 옷을 추천한 것인데 요즘 옷은 이렇게 입어야 세련되고 우아하다고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도통 모르겠다. 매일 입는 옷이니 체형에 어울리게 잘 입고(실용성) 멋지게 입는 방법이나 옷 재활용, 폐기 방법은 왜 팔지 않는지 모르겠다.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아름다움과 품위를 높이는 기물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이윤추구, 과잉, 소비습관이 문제가 된다. 수십 벌의 겨울옷을 보면서 입지도 않은 옷을 산돈이 아깝기도 하고 어릴 적 기워 입고 형한테 물려 입던 옷 때문에 엄마에게 새 옷 사달라고 떼쓰던 공평했던 때를 잊어버리고 사치한 아쉬움도 있다. 종일 옷들과 씨름하면서 나들이와 행사가 많은 봄이지만 기분전환용이나 과사용, 계절 맞이 용으로 옷을 사지 않겠다고 작정해 본다. 봄이 오자마자 바로 여름이 된다니 봄옷은 별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래서 올해 봄옷은 사지 않기로 했다.

## 社說

# GGM, 소탐대실로 상생의 가치 버려선 안돼

## 노·사·민·정協 중재안 수용해야

광주시가 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장기화 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파업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을 태동시킨 원동력이다. GGM 노사가 이번 중재안을 수용해 어렵게 태동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에 이여지길 기대한다.

조정·중재안은 GGM 노·사에 노사 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경영진에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2교대 도입 등 공급물량 확대와 신규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조에도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적극협력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에는 실질적 복지 확대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GGM의 노

사갈등은 광주형 일자리의 GGM의 가치는 물론이고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당장 노사간 협상 결렬 이후 수십 차례에 이르는 노조의 파업으로 일감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노조 파업으로 일반직 직원이 생산라인에 투입되면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경우 현대차 위탁 중동이 나 투자금 회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GGM의 위축이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 내수침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문제다.

이날 중재안을 두고 사측은 '준중하겠다'고 했다. 회사와 지역경제를 위한 대응적 결단이다. 노조도 사측의 양보를 존중해 국내 첫 노사 상생형 모델인 GGM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반도체부터 철강과 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경제도 어느 때보다 힘겹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사소한 문제로 GGM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GGM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 아이 건강 해치는 불량식품 뿌리 뽑아야

## 학교 그린푸드존 유명무실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학교 주변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어린이 기호식품 보호구역)이 지정 17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인근 매장의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비롯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린푸드존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돼 있다.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kcal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미만 식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문제는 그린푸드존이 의무사항이 아닌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 보니 이른바 '불량식품'이 학교 주변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내에는 각각 208개와 536개의 그린푸드존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열량·저영양, 고가파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신청하는 '우수판매업소'가 광주 15곳, 전남 135곳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 매점까지 포함된 숫자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우수판매업소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판매업소에는 마땅한 처벌 근거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은 정부가 적절하겠다는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중 하나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에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

아이들은 미래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관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 서석대



논어에 이르기를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 군사력, 백성들의 믿음 셋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공자가 말했다. "군사력이다", 자공이 다시 물기를 "나머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요?" 하자 공자는 "식량이다. 절대 백성들의 믿음은 버려선 안 된다.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결정됐다. 오는 4일이다. 모두들 단단히 마음 잡수셨으리라 생각한다.

광주·전남의 미디어들은 그날 대부분 근무다. 호외를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회사를 가득 채울터다. 호외가 아니라도 집에는 못 있을 것이다.

2012년 겨울이었다. 몸은 피로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고, TV 화면에서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갈 즈음,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즈막한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웬지 모를 불안감이 편 집국을 맴돌았다. 당선 확정 자막이 뜰 때쯤 이미 신문 마감기사는 넘어가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강한 한기가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디가서 한 잔 하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 듯 했지만 누구도 한 잔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눈 대신 비가 올 것만 같았던 2012년 12월20일, '박근혜 당선...첫 여성 대통령'이란 헤드라인을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썼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봄을 맞았다. 3월10일, TV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길고 긴 주문이 단 1분처럼 느껴지는 마법의 단어 '파면한다'에 편집국은 뒤집어질 듯 환호가 터졌고, 모두들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시계 바늘은 다시 돌았다. 2025년 4월이 왔다. 4월은 구근이 마른 땅에서 뿌리를 틔우는 계절이다. 잔인하지만 그래서 봄이다. 백성의 믿음을 버린 권력은 마른 땅과도 같다. 허나 우리가 누구인가. 왕도 도망간 땅을 지키기 위해 호미를 들고 나온 깡다구 하나는 알아주는 조상을 둔 민족 아닌가. 그 마른 땅에서도 기필코 뿌리를 내리고 마는 징그럽도록 강한 민족이다.

그렇기에 감히 말하건데... 그날 우리는 8대0의 선고를 통해 땅을 바꿀 것이다. 수천만의 씨앗들이 분명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날 것이다. **노병하 디지털콘텐츠부장**

## 8대0을 기다리며...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